"한국어 능력-안거 등 외국인스님 교육 강화"

기본교육 받아야 구족계…재교육 정례화도

조계종 교육원 간담회

앞으로는 외국인 스님들도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안거 등 교육원이 인정하는 일정 과정(기본교육)을 거쳐야만 조계종단의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연수를 통한 외국인 스님 재교육도 정례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20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외국인 승려 관계자 간담회'에서 견진(교육국장) 선우(연수국장)스님 등 교육원 관계자와 현성(화계사 교무) 무심(화계사) 청고(금강선원)스님 등 외국인 선원 관계자 및 외국인 스님은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확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 벌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원이 외국인 스님 교육체계 마련에 나선 것은 외국인 스님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이들 외국인 스님들이 해외에서 '한국불교 포교'라는 중책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외국인 스님들의 질적 향상과 한국불교 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다소 까다로운 교육과정을 요구할 경우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불교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교육의 질을 추구하면서도 한국불교를 찾는 외국인 스님들의 양적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어 구사능력과 관련해 양측은 '행자교육 진행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을 갖춘 행자에 한해 입교를 허락한다'는 지난 6월 행자교육원 제4차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행자교육에 필요한 언어들은 매뉴얼을 만들어 미리 보급,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속적인 수행과 공부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계사, 무상사, 연등국제선원 등 외국인 스님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사미·사미니의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해서는 4년 정규안거(8안거)를 마친 스님에 한해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거 횟수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키로 했다.

또 매년 사찰 및 유적지 순례 등의 연수회를 정례화해 재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원은 외국인 스님들의 비구(계) 수지자격에 대한 특례조항 설치를 추진키로 하고 중앙종회 교육분과와 협의를 벌여 나가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 스님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화계사 무상사 등 외국인선원이 종단 정규선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원수좌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원은 외국인 승려 재교육의 일환으로 오는 11월3일부터 7일까지 해인사, 불국사, 봉암사, 건봉사 등을 순례하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찰토지 1년단위 임대계약"

조계종 지침 시달

조계종 소속 사찰이 토지를 임대할 경우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료도 년 단위로 받아야 한다.

조계종총무원 재무부는 21일 불교회관 1층에서 교구본사 재정국장 회의를 열고 사찰 토지를 임대시 임대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현직 주지스님 임기를 넘지 않는 기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의 토지임대 지침을 시달했다. 재무부는 또 계약체결시 반드시 종단 표준 임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임대목록을 총무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무부가 토지임대 지침을 시달한 것은 장기임대에 따른 소유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회의 자료를 통해 "종단 소속 사찰 중 10여 개 이상의 사찰에서 일반인이 사찰을 상대로 20년 이상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지침 시달은 삼보정재 망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법규위원장 수종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18일 법규위원장에 수종스님〈사진〉을, 법규위원에는 수열·성주·학현·자월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월해 전 법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수열·성주 위원은 유임됐다.

수종 법규위원장은 1935년 생으로 지난 65년 법천스님을 은사로 내장사에서 출가했으며 고창 상원사 주지, 부안 백암사 주지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전북종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집단행동으로…

◇19일 열린 징계제도 세미나에서 자유형 징계를 도입하자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호법분과위원회는 징계관련 종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형 징계 도입 긍정적"

조계종 징계제도 개선 세미나 참석자 한 목소리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대원) 주최로 19일 열린 '징계제도 및 징계자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자유형 징계 도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징계제도 운영자의 전문성·청정성 확보, 참회와 계율에 대한 교육제도가 마련, 승가의 엄격한 도덕성 및 지위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세미나는 종회 부의장 청화스님의 사회로 '징계자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총무원 호법부장 종지스님) '사회내 처우를 통한 피징계자의 관리 가능성'(장규원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가톨릭 및 불교 제종단의 징계제도 비교 검토'(종회의원 지광스님) '징계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하여'(호법분과위원장 대원스님) 등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종회의원 세영스님, 초심호 계위원 성웅스님, 송광사 율원 교수사 지관스님, 경기대 교정학과 이윤호 교수가 참여했으며,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 호계원 사무처장 원행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종회의원 현응스님 등 1백여명이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징계제도 개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자로 나선 성웅스님은 "과오를 참회하고 다시는 파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움으로써 승려 자신의 재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징계의 경중에 따라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소집명령이 이행되어야 하고, 각 징계에 적합한 기간을 정해 교육, 봉사, 안거를 이행토록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영스님도 "종무직 취임과 선거권 등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현재의 징계제도로는 징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자유형 징계제도의 도입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는 자유형 징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지관스님은 "징계제도를 운영하는 자의 전문성과 청정성, 제도 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화합·청정 승가 구현이 가능하다"며 특히 호법부와 호계원 구성에 계율을 공부한 전문가의 참여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윤호 교수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승려로서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교육과 수도가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승려에 대한 지위, 신분, 권위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산사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

8월 16~18일, 용주사

불교와 상담의 만남이 산사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이근후)은 8월16일부터 18일까지 화성 용주사에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을 주제로 불교상담의 미래를 조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토론회에는 '명상을 통한 자기 치유'(장현갑, 영남대 교수) '불교와 상담'(윤호균, 카톨릭대교수) '2천년대 상담의 방향'(이규미, 서울시청소년상담실장)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정호(덕성여대교수) 권석만(서울대교수) 박경석(사랑의전화 상담교수)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조계종 고시위원회 발족

4, 5급 승가고시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발족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18일 발족식을 갖고 위원장에 무비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위원에 법산 성우 무관 도법 지오 지현 영진 일연 스님을 위촉했다.

이어 열린 1차회의에서는 4, 5급 뿐아니라 3급까지 포괄하는 것과 고시업무의 실무를 담당할 고시전문위원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승가고시법의 개정을 종무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고시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승가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5급은 9월경 고시위 주관으로 현행대로 실시하고, 10월 시행되는 4급은 교육원에서 8월초 발행하는 〈승가고시예상문제집〉 수정판과 사미·사미율의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시위원회는 4, 5급 승가고시 시행 일정이 촉박한 만큼 8월 23일 직지사에서 연찬회를 갖고 고시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교과과정 표준화 워크숍

조계종 경학원(회장 능허)은 29일부터 30일까지 해인사 문수암에서 교과과정 표준화 방향설정을 위한 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종단 승려 기본교육의 목표와 교과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준 교과통일화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학원은 이와함께 8월경 2차 워크숍을 갖고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9월경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광역신도회 준비위 활동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8일 서울지역 7개 사찰 및 14개 단체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역신도회 구성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갖고 창립준비위원장에 김인수 조계사 신도회장을 선출했다.

이와함께 창립준비 운영위원에는 조계사 봉은사 능인선원 불광사 도선사 옥천암 등 6개 사찰신도회 대표와 불자교정인연합회, 교수불자연합회, 교사불자연합회, 대불청, 운불련, 선재마을의료봉사회, 불자산악인연합회 등 6개 신도단체 대표 12명이 위촉됐다.

창립준비위는 8월24일 각 참여단체 전체모임에 앞서 3차례에 걸쳐 운영위원 회의를 갖고, 9월2일 서울광역신도회 창립식을 갖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국장협 구성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가 구성됐다.

송광사, 통도사, 직지사 등 15개 교구본사 포교국장스님들은 지난 8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포교원 주최로 열린 제 2차 전국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에 참석, '전국 교구본사 포교국장협의회'를 결성하고 통도사 포교국장 오심스님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포교분야별팀 구성, 포교사 및 포교사단 관리령 재검토, 신도교육 실시, 포교국장단 해외연수 추진 등도 결의했다.

포교국장협의회는 앞으로 2달에 한번씩 정례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포교발전 연구를 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선원 순회 사미의제 감찰

선원에도 사미의제 감찰이 실시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일부 선원에 안거중인 사미, 사미니들이 사미의제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7월 말부터 8월31일까지 각 선원을 순회하며 사미의제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교육원은 4월부터 사미의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적발된 사미 18명에 대해 비구계 수지자격 1년 유보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한국의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는 지난 98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諸法에 대한 만민토론 법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무차대법회란 말 그대로 불교계에 諸法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누구나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공개 토론하는 장으로 선논쟁의 불식과 禪風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행의 연장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인류에게 깨우침을 전해 줄 고불총림 무차대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古佛叢林
참사람 無遮大法會

2544년 8월 19일(음 7.20) 토요일

- 오전 8시30분~오후6시 방생법회(일광정 호수)
- 9시30분 큰스님 법어
- 오후 2시 큰스님 법어 및 강설
- 6시 만등불사 연등 점촉

고불총림 백양사
전화 (061) 392-7502, 392-4603
팩스 (061) 392-2081

■**증 명** : 서옹대종사, 혜암대종사
■**고 문** : 관응, 고송, 월하, 원담, 벽암, 석주, 응담, 도천, 도견, 지종, 청하, 성수, 숭산, 종산, 보성, 정천, 법전, 녹원, 도원, 월인, 청화, 송담, 법룡, 정영, 진제, 지유, 활안, 인허, 범행, 정일, 월주, 혜정, 벽봉, 광제 (무순)
■**선 덕** : 고봉, 고우, 구암, 근일, 노학, 능연, 몽산, 무분, 무여, 성우, 원융, 월성, 인각, 일우, 정광, 정명, 평전, 철웅, 초삼, 현기, 현산, 혜국, 효산 (가나다순)
■**자문위원** : 거혜, 구한, 고산, 능가, 능혜, 다정, 덕민, 대원, 덕영, 도문, 도영, 도성, 무진장, 도후, 동광, 명선, 무공, 무비, 밀운, 법등, 법안, 법의, 법장, 법정, 법조, 법조, 법타, 법현, 법홍, 벽파, 백운, 보광, 보선, 봉주, 부림, 선곡, 설정, 성덕, 성오, 성우, 성주, 성타, 성파, 세민, 숭경, 암도, 우송, 원명, 월성, 월운, 월은, 월탄, 월파, 인환, 일면, 정관, 정대, 정락, 정련, 정무, 종걸, 종범, 종원, 종진, 중원, 지관, 지선, 지성, 지은, 지하, 진철, 진혜, 진호, 천운, 초우, 천제, 철웅, 철형, 통광, 학능, 화엄, 현성, 현해, 현호, 혜광, 혜남, 혜산, 혜성, 혜정, 혜종, 효광, 홍교 (가나다순)
■**지도위원** : 각수, 각현, 경훈, 계성, 계현, 광복, 광조, 금산, 금성, 금송, 능성, 대성, 대오, 대우, 대원, 대현, 대효, 덕상, 덕함, 도각, 도법, 도선, 도안, 도오, 도완, 도원, 돈각, 돈수, 동덕, 동명, 동욱, 두백, 마근, 만조, 명곤, 명관, 명언, 명정, 명조, 명진, 몽산, 무관, 무량, 무산, 무상, 무연, 무착, 백산, 범종, 법각, 법공, 법담, 법두, 법보, 법성, 법안, 법연, 법우, 법인, 법일, 법혜, 벽담, 벽상, 보광, 보성, 부동, 불산, 상경, 상운, 상현, 석호, 선광, 선봉, 선오, 선용, 선용, 설송, 설조, 성관, 성로, 성문, 성운, 성우, 성운, 성월, 성재, 성주, 성혜, 세영, 소연, 수경, 수완, 수진, 시몽, 심경, 양산, 여연, 연관, 연수, 영담, 영명, 영배, 영선, 영조, 영진, 영환, 우담, 우화, 유광, 원담, 원명, 원연, 원우, 원응, 원타, 원택, 원행, 원행, 원효, 월우, 의정, 인각, 인담, 인묵, 인행, 일륜, 일철, 임조, 장곡, 장운, 장주, 재운, 적연, 정각, 정경, 정관, 정념, 정묵, 정우, 정우, 정우, 정인, 정중, 정찬, 정태, 정혜, 정호, 정휴, 제우, 종경, 종고, 종광, 종대, 종락, 종림, 종밀, 종설, 종상, 종상, 종성, 종안, 종엽, 종우, 종지, 종표, 증하, 증현, 자승, 주일, 지공, 지광, 지근, 지만, 지묵, 지범, 지송, 지승, 지오, 지우, 지운, 지운, 지욱, 지원, 지일, 지진, 지하, 지향, 지현, 지형, 지홍, 지환, 진각, 진관, 진광, 진만, 진성, 진아, 진원, 진현, 천진, 철산, 철우, 철인, 청원, 청제, 청화, 탄공, 탄우, 태공, 태연, 태묵, 태응, 평상, 평중, 학담, 함주, 향운, 향적, 허정, 현각, 현근, 현봉, 현소, 현암, 현용, 현응, 현장, 현전, 현지, 현진, 현진, 혜관, 혜권, 혜산, 혜안, 혜암, 혜원, 혜정, 혜창, 호연, 화범, 효광, 효종, 법용, 본각, 수현, 육운, 일법, 재운, 지훈, 진성, 해주, 홍륜 (가나다순)
■**조직위원장** : 다정
■**조직위원** : 선각, 혜승, 진공, 수인, 창렬, 창오, 지일, 원진, 응각, 법륜, 진우, 현광, 법일, 화봉, 현명, 법장, 향공, 일수, 진오, 법신, 정연, 도성, 설재, 도일, 진우, 현공, 무공, 보현, 토진, 성묵, 일도, 석옹, 현각, 혜성, 무연, 정현, 의연, 원일, 세정, 선공, 광진, 자성, 동참, 동파, 탄우, 자연, 보연, 원종, 석장, 본묵, 혜현, 장우, 원철, 현묵, 명진, 무아, 무상, 정만, 용주, 대묵, 법광, 호산, 본연, 청연, 도연, 초연, 상연, 여훈, 형공, 관연, 영공, 규암, 혜각, 동산, 경진, 경만, 보행, 문성, 심연, 법현, 무경, 향운, 무학, 정명, 법지, 정재, 도일, 도현, 정견, 석언, 학연, 한복, 원광, 주경, 성전, 성오, 대주, 재연, 원명, 성륜, 광전, 용화, 명전, 대천, 혜용, 명원, 수안, 서훈, 동선, 금인, 홍원, 원용, 정진, 현암, 선각, 선공, 법연, 대연, 지상, 경선, 광인, 여연, 혜종, 만당, 용진, 법우, 가연, 보인, 대현, 상전
■**준비위원장** : 암도
■**준비위원** : 원웅, 원진, 타파, 일수, 현광, 진우, 원일, 무아, 호산, 범신, 현묵, 석연, 만당, 정견, 법구, 법주, 소궁, 법전, 보광, 덕룡